

Arts Fri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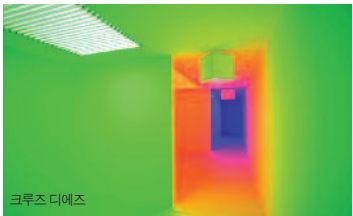
 -Arts, Your Arts!
ULSAN

7·8
2020
Vol. 236



울산시립무용단
〈야夜한寒 댄스페스티벌〉

Events		Special Performance		Arts & Story		Information	
울산시립무용단 야夜한寒 댄스페스티벌	04	기획공연 울산아츠스토리 On-Air 어나도아트	08	호로 읽는 한국미술사 16 이당 김은호의 낙청현에서 지금도 이어지는 후소회	14	7·8월 공연·전시가이드	32
울산시립합창단 제114회 정기연주회	06	기획전시 크루즈 디에즈	10	커뮤니티 아트 5 아카데미즘이라는 성채(citadel)를 넘어	18	공연일정	36
		아트 클래스 전원경의 그림 콘서트	12	박지운의 오페라와 인생 15 가짜뉴스	22	전시일정	40
				뮤지컬 ‘모차르트’ 천재 음악가를 무대로 재연하다	24	울산지역 공연 & 전시 정보	44
				미학의 눈_작품해석과 감상 5 빙하가 떠있다.	28	유료회원 특별혜택	45
						회원가입안내	46
						협약점 이용방법	47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20년 7·8월호 통권 236호

발행처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남구 범영로 200(달동)
발행인 울산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홈페이지 <http://ucac.ulsan.go.kr>
기획·편집 홍보마케팅팀 T.052) 226-8241~2
디자인·제작 시넷가에심은나무

댄스페스티벌 야 夜 한 寒

한여름 밤 夜 시원한 寒 댄스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움츠려있는 지역 무용계와 연희단,
그리고 관객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피로 극복 프로젝트

울산시립무용단은 오는 7월 31일과 8월 1일 양일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에서 오후 8시부터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부터 프로 무용단과 연희단, 다문화 공연 단체를 초청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한여름 밤 시원한 축제의 장 <야夜한寒 댄스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립무용단 홍은주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은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김소영 소리꾼이 진행을 맡고, 학춤보존회, 창작집단 달, 이정화무용단, 정다혜무용단, 이필승무용단, B-boy 포시크루, 카이크루 등 다양한 장르의 무용단체와 버숨새, 내드름연희단, 뮤직팩토리 등 타악단체를 비롯해 다문화 공연단체도 함께한다.

페스티벌을 수놓을 프로그램으로는 부채춤, 풍류장고, 흥취무 등 화려하면서도 흥겨운 전통무용, 무한 에너지로 열정을 표현하는 비보이(B-boy) 댄스, 중국·러시아 전통무용, '너영나영', '신모듬' 등 우리 소리의 맛을 선사할 국악연주, 그리고 두드리고 두드리는 타악의 울림이 몸 속으로 파고드는 타악 퍼포먼스까지 다채롭게 마련된다.

홍은주 예술감독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계가 침체되어있다. 탁 트인 야외에서 펼쳐지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예술인들과 관객들 서로간 에너지를 주고 받으면서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뜨거운 한 낮의 열기만큼이나 넘치는 열정의 무대가 될 이번 페스티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7.31. FRI

부채춤	울산시립무용단
혁당월색	중국 한마음무용단
수 불리	필리핀 유필코무용단
민족의 우정	러시아 리두가 노아권무용단
멤	동해누리
풍월을 짓다	지영경무용단
죽비춤	울산시립무용단
흥	이필승무용단
쾌	이정화무용단
비익조	김진원무용단
치미춤	울산시립무용단
Keep it real	포시크루
차원의 빛	박종원무용단
소울(치타&대고)	내드름연희단
대동놀이	출연진 & 관객 모두

8.1. SAT

국악	울산시립무용단&버숨새, 춤-이소영 김유성 -민요의 향연 / 너영나영 / 리베르탱고 / 신모듬
풍류장고	울산시립무용단
고성오광대 中 '탈춤'	탈춤동호회 청노새
울산학춤	울산학춤보존회
난중지고	태화루예술단
36.5	창작집단 달
흥취무	울산시립무용단
까마귀춤	울산시립무용단
영혼의 댄스	정다혜무용단
신요고	버숨새
렉처댄스(브레이크네이션)	카이크루
대동놀이	출연진 & 관객 모두



강한 울산, 힘내라 울산! 울산의 저력으로 「코로나19」극복!

2020. 7. 31.(금) / 8. 1.(토)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주최_  울산광역시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울산시립합창단 제114회 정기연주회

울산시립합창단 제114회 정기연주회를 맞이하여 서울시합창단 단장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강기성 지휘자를 객원지휘로 초청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격조높고 고전합창음악의 정수를 선보이고자 로시니가 말련에 쓴 곡 중 가장 중요하며 음악적 완숙함이 묻어나는 작은장엄미사를 선보입니다.

울산에서는 초연되는 작품으로 소공연장의 규모에 맞게 오르간과 2대의 피아노 그리고 최정상 솔리스트들의 만남으로 관객분들에게 아름다운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지휘
강기성



소프라노
김방술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신상근



베이스
김대수



오르간
권정원

PROGRAM

Petite messe solennelle (작은장엄미사) / G. Rossini

1부

1. Kyrie
2. Gloria:
 - Gloria in excelsis Deo
 - Gratias agimus tibi
 - Domine Deus
 - Qui tollis peccata mundi
 - Quoniam tu solus sanctus
 - Cum Sancto Spiritu

휴식

2부

3. Credo:
 - Credo in unum Deum
 - Crucifixus
 - Et resurrexit
4. Preludio religioso
5. Ritornello - Sanctus
6. O salutaris hostia
7. Agnus Dei

INFORMATION

일 시 2020. 7. 21(화) 오후 7시30분
장 소 소공연장
지 휘 강기성
출 연 소프라노 김방술,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신상근, 베이스 김대수, 오르간 권정원
티 켓 전석 1만원 (회원 30%, 단체 20% 학생 50% 할인 등)
관람등급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

G. ROSSINI PETITE MESSE SOLENNELLE

로시니 작은장엄미사

객원지휘 강기성
소프라노 김방술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신상근 바리톤 김대수
오르간 권정원 피아노 김혜은 김나리

2020. 7. 21.(화)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_ 전석1만원
할인_ 회관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 학생(초/중/고) 50%
문의_ 052 275 9623 <http://ucac.ulsan.go.kr>
관람등급_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

주최_ 울산광역시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Special Performance
기획공연

ULSAN ARTS STORY ON-AIR

울산 아츠스토리 On-Air

지역출신 예술인들의
공연 프리뷰 동크 온라인 사전공개!

YouTube 울산문화예술회관

2020. 7. 25. | 토 | 17: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가 전석 2만원 *회원 30% 등 할인적용
관람등급 8세(초등학생) 이상
관람시간 90분(인터미션없음)
문의 및 예매 052-275-9623, ucac.ulsan.go.kr
주최 울산광역시
주관 울산문화예술회관

Arts Friend 8



울산광역시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 & Arts Center

행사내용

아트 프리마켓
버스킹 공연
체험 부스
울산 작가 만나보기

2020 ' 07' 25'
09' 26'
문화예술회관
야 외 광 장
10' 24'



코로나19 방역 지침 마스크 착용, 타인과 1미터 이상 거리두기

울산문화예술회관 개관 25주년 기념 ————— 색의 거장
크루즈-디에즈

Cruz-Die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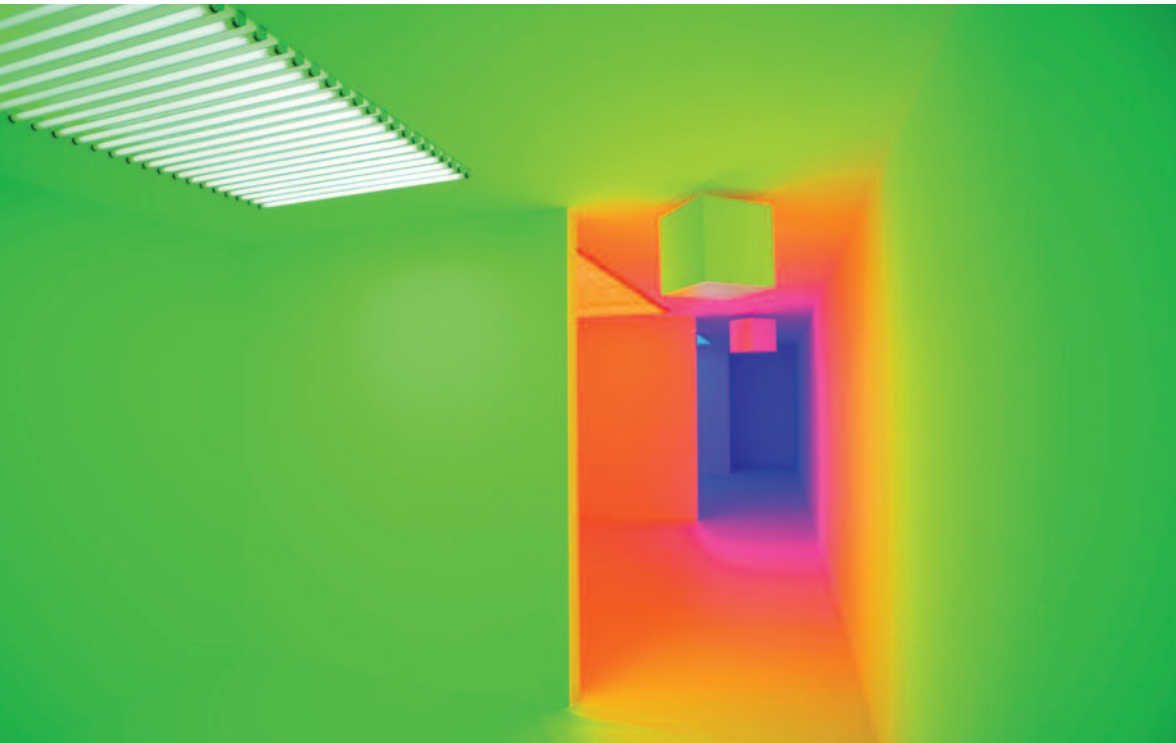
The Master of Color

2020. 8. 01_{sat} - 8. 30_{sun}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



Carlos Cruz-Diez in his workshop, Paris, France, 2017
©Photo : Atelier Cruz-Diez Paris / Lisa Preud'homme
©Carlos Cruz-Diez ADAGP, Paris-SACK, Seoul, 2020



Chromosaturación, 1965/2013 ©Photo : Sharjah Art Foundation / Alfredo Rubio ©Carlos Cruz-Diez ADAGP, Paris-SACK, Seoul, 2020



Environnement Chromointerférent, 1974/2012
© Photo : Atelier Cruz-Diez Paris
© Carlos Cruz-Diez ADAGP, Paris-SACK, Seoul, 2020

전시개요

전 시 명 색의 거장 크루즈-디에즈展
기 간 2020. 8. 1.(토)~8. 30.(일), 30일간 ※휴관일 없음
장 소 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관람요금

구분	성인	학생(어린이 포함)
일반	3,000원	2,000원
할인	2,000원	1,000원

※ 유료회원, 10인이상 단체, 국가유공자, 장애인 할인적용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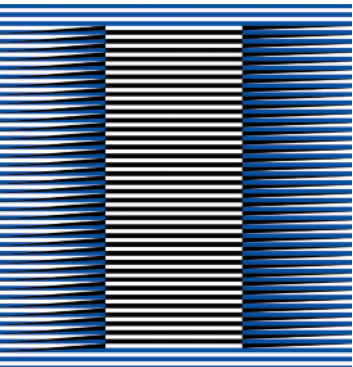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10:00	10:30	11:00	13:00	14:00	15:00	16:00	17:00

※ 단체관람 사전모집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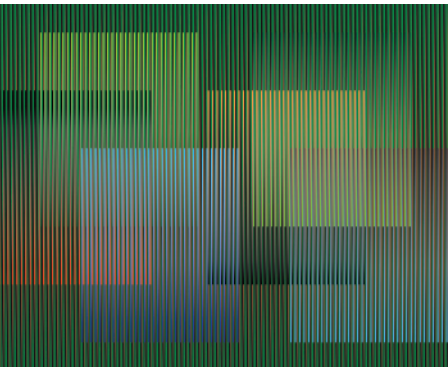
“뉴욕의 모마, 런던의 테이트 모던, 파리의龐피두 센터에 이어서 울산에 펼쳐지는 색과 빛의 환상적 세계”

울산문화예술회관은 개관 25주년을 기념하는 초청기획전시「색의 거장 크루즈-디에즈展」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1전시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예술에 과학을 접목하여 색과 빛의 예술적 경험을 극대화한 크루즈-디에즈의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카를로스 크루즈-디에즈(Carlos Cruz-Diez)는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활동했고, 색과 빛의 원리를 평생 연구하며 옵-키네틱 아트 작품으로 작업활동을 이어오던 작가다. 한국과도 연이 깊은 그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6m가 넘는 태극 문양의 조각을 올림픽 공원에 선보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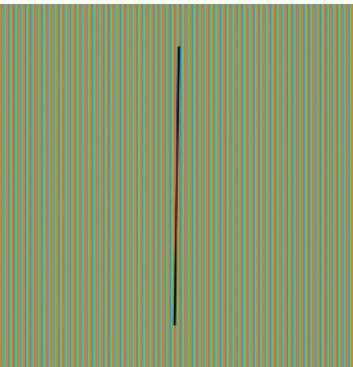
〈색의 거장 크루즈-디에즈展〉에서는 색 간섭환경, 색채추가, 색채유도, 색 가득 공간, 색채공간으로 나누어 작품을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색과 선들로 이어지는 독특한 형태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예매는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관람료는 성인 3,000원 학생(어린이 포함) 2,000원이다. 뿐만 아니라, 전시 기간에는 전문 도슨트(Docent)가 배치되어 매일 8회씩 시민들에게 다가가 작품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인 〈전시작품 관람해설〉이 운영된다.



Inducción del amarillo Nov Chacao 10, Panama 2016
©Articruz S.A. Panama
©Carlos Cruz-Diez ADAGP, Paris-SACK, Seoul, 2020



Color Aditivo Kamarata 2, Panama 2016
©Articruz S.A. Panama
©Carlos Cruz-Diez ADAGP, Paris-SACK, Seoul, 2020



Color al espacio Chacao 5, Panama 2016
©Articruz S.A. Panama
©Carlos Cruz-Diez ADAGP, Paris-SACK, Seoul, 2020

아트 클래스 전원경의 그림 콘서트

미술작품 피터르 브뤼헬, 장 프랑수아 밀레, 조르주 쇠라



전원경 강연(진행)

연세대학교 졸업, 영국 시티대학교 런던(City University London) 예술비평 및 경영 전공 석사
글라스고 대학교(University of Glasgow) 문화콘텐츠산업 박사 학위 / 월간 '객석'과 '주간동아' 문화팀 기자
<예술, 역사를 만든다>, <콜림토>, <런던 미술관 산책>, <영국: 바꾸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 등 집필
예술의 전당 인문아카데미,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예술 역사, 사회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강의중
수원 SK아트리움에서 <전원경의 미술관 열 음악당> 5년째 진행 중 /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해설음악회 진행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전원경의 그림 콘서트> 2년째 진행 중



김진석 피아니스트

울산예고, 독일 뒤셀도르프국립음대 학사 및 동대학원 실내악, 반주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스위스 루체른 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Don Vincenzo Vitti 국제콩쿨, Premio Citta di Padova 국제콩쿨, Euterpe 국제콩쿨 입상
2018년부터 서거 200주년인 되는 2027년까지 10회에 걸친 '피아니스트 김진석의 베토벤 시리즈' 기획, 연주
2019-2020 서울문화재단 선정 아티스트(최초예술지원)

현.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겸임교수, 계원예중, 계원예고 출강



조윤희 테너

오스트리아 'Vienna 국립음악원 (Dipl.) 졸업
독일 'Berlin 국립음악원 (K.E) 수석졸업, 독일 'Leipzig 국립음악원 (M.E) 졸업
국제 콩쿨 수상, 오케스트라 다수 협연
현. 경기예고, 덕원예고, 계원예고, 계원예중, 예술의전당 영재아카데미 출강
K챔버 및 연세신포니에타 수석, 코리아나 챔버 뮤직소사이어티 멤버



최주연 첼리스트

서울예고(예원 예고를 빛낸 상 수상) 졸업
프랑스 파리국립고등음악원(CNSMDP) 학사(Licence)와 석사(Master) 최우수성적 졸업
독일 함부르크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최연소입학 및 심사위원 전원만장일치 최고점졸업
국내외 오케스트라 다수 협연 및 초청연주 / 음반'Cello Sonatas' (유림 DUX 레이블) 발매 및 KBS FM 음반 소개
수원시립교향악단의 부수석 역임
현.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성남시립교향악단 객원 첼로 수석, 앙상블 여운, 골레 앙상블 첼리스트,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한세대학교 출강

강연개요

강 연 명 아트 클래스 <전원경의 그림 콘서트>
일 시 / 장소 2020. 5. 7, 9, 11월, 총 4회 / 소공연장

일자	5. 21(목)	7. 24(금)	9. 18(금)	11. 20(금)
시간	11:00~12:40(100')	11:00~12:40(100')	11:00~12:40(100')	11:00~12:40(100')

입 장 료 전석 10,000원
입 장 등 급 초등학생(8세) 이상 관람가
예매 및 문의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 <http://ucac.ulsan.go.kr>



피터르 브뤼헬 농가의 결혼식

7.24.^{FRI} 노동과 휴가 : 예술 속 삶의 풍경

문화예술회관의 '전원경의 그림 콘서트'는 강연(Lecture)과 공연(Concert)이 합쳐진 랙트 콘서트 형식으로 미술작품 감상과 음악 연주를 직접 들으며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강연이다. 지난 5월 전원경의 그림 콘서트를 첫 시작하며 예술과 자연 - 산과 숲과 바다와 꽃으로 예술가들의 상처를 치유한 자연,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거듭난 뛰어난 예술 작품을 감상했다.

오는 7월 24일 금요일 노동과 휴가편은 우리 삶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매일의 노동, 그리고 가끔 떠나는 휴가를 주제로 한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조명해 본다. 과거의 예술은 군주, 귀족들의 후원을 받거나 종교 예식의 한 부분으로 만들었다. 예술가들이 군주와 교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시점부터 보통 사람들의 소박하고도 성실한 일상은 예술의 새로운 주제로 예술가들의 관심을 끌

기 시작했다.

피터르 브뤼헬, 장 프랑수아 밀레, 조르주 쇠라의 작품 설명과 더불어 슈베르트, 모차르트, 드보르작 등의 곡을 피아니스트 김진석, 테너 조윤희, 첼리스트 최주연의 연주로 만나볼 수 있다.

진행자 전원경은 예술전문작가로 <예술, 역사를 만든다>, <영국 : 바꾸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 <런던 미술관 산책> 등의 책을 썼으며, 현재 서울, 천안, 대전 등 활발한 강의와 라디오 등 출연하고 있다.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에 만나는 그림 콘서트의 입장료는 전석 10,000원으로 유료회원 할인으로도 만날 수 있으며 회관 홈페이지 및 전화로 예매가 가능하다. 풍성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의 여유를 느끼며 보고 듣는 행위의 즐거움을 안겨줄 것이다.



장 프랑수아 밀레 이삭줍기



조르주 쇠라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호로 읽는 한국미술사 **16** | 이인숙
『석재 서병오 필묵에 정을 담다』 저자

이당 김은호의 낙청헌에서 지금도 이어지는 후소회

스무 살 이당 김은호, 순종을 그린 마지막 어용화사

김은호(1892-1979)의 화필 생활과 주변에 대해서는 그가 구술한 회고록 『서화백년(書畵百年)』이 있어 참고가 된다. 85세 때인 1976년 중앙일보에 연재한 내용을 책으로 묶었다. 김은호는 인천의 부농에서 태어나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친척 때문에 가산을 모두 잃게 되고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17세 때인 1908년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온다. 이발소 잔일, 제화공, 측량기사 조수 등을 전전하며 3년 동안 22번이나 셋방을 옮겨 다닐 정도로 가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던 교회의 장로가 운영하는 고서점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한담을 나누던 장안의 명사 백당(白堂) 현채와 중추원 참의 김교성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김교성이 쥐고 있던 함축선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현채가 “심전(心田)은 명인이야 글과 그림이 모두 빼어났지”라고 하자 김은호는 ‘환장이’도 일류 명사의 칭찬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림공부를 하기로 결심했다. 원래 세필에 자신이 있었고 어려서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던 그였다. 김교성이 그 자리에서 써 준 추천 편지를 들고 김은호는 곧 서화미술회 강습소로 심전 안중식을 찾아가다.

비독을 두고 있던 안중식은 편지를 읽고 나자 김은호에게 『고금명인화고(古今名人畵稿)』를 내주며 미인도를 모사시켜 본 후 바로 공부를 시작하라고 했다. 1912년 8월 1일 스무 살 김은호는 이렇게



김은호, <순종황제 인물상> 종이에 채색, 59.7×45.5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그림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집안의 끼니를 책임져야 하는 김은호가 인쇄소나 도장포로 일거리를 찾아다니느라 며칠씩 결석을 하자 사정을 알게 된 안중식과 서화미술회 교수진은 월급에서 얼마씩 떼어내 모은 돈을 김은호에게 주며 그림공부를 격려하기도 했다.

김은호는 서화미술회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일파 송병준의 사진을 작은 초상화로 옮겨 그리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이 솜씨가 고종의 귀에 들어가 고종의 초상사진을 그림으로 옮기는

테스트를 받게 되고, 이어서 순종의 초상화를 창덕궁 인정전 행각(行閣)에서 정식으로 그리게 된다. 김은호는 “붓을 잡은 지 삼칠일(21일) 만에 어진을 모시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그러자 안중식은 “이제 어용화사가 되었는데 별호가 있어야지”하며 춘헌(春軒)으로 호를 지어주었다. 김은호가 같은 안동교회에 다니는 춘원(春園) 이광수와 발음이 비슷하다고 하자 이당(以堂)으로 다시 지어주었다. “『주역』의 24괘가 ‘이(以)’자로 시작하고 『시전(詩傳)』에도 ‘일중성조(日中聲鳥) 이은중춘(以殷仲春)’이란 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서화백년』에 나온다. 안중식은 “별호는 획이 적고 부르기가 양명(陽明)해야 하느니”라고 하며 다음날부터 이당으로 불렸다. 이를 보면 근대기 화가들의 호는 제자가 그림 실력을 인정을 받게 되면 스승이 지어주었고 일단 호를 받으면 일가(一家)로 대접해 호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김은호는 순종어진을 여러 차례 그렸고, 고종을 비롯해 다른 어진도 그렸지만 현재 전하는 것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고려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두 점의 밑그림뿐이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순종황제 인물상>은 기름을 먹인 유지(油紙)에 그린 초본이다. 오른쪽 아래에 “계해(癸亥) 춘절(春節) 이당(以堂) 김은호(金殷鎬) 근사(謹寫)”로 기록해 놓아 1923년 그린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조선미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이 표제는 나중에 적어 넣을 때 착오가 생겼던 것으로 여겨지고, 어진 관련 기록과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보면 이 그림의 액자의 뒷면에 기록되어 있는 1913년 무렵에 1909년 찍은 순종의 사진을 보고 그렸을 것이라고 한다. 1883년 황철(1864-1930)이 상해에서 독일제 사진기와 사진재료를 들여온 후 서울에 사진관이 속속 생겨 실제 인물이 아니라 사진을 보고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다. <순종황제 인물상>은 피부 주름을 세밀하게 표현해 안면의 특징을 나타내는 육리문(肉理文) 기법이 아닌 미세한 잔 붓질을 반복하는 세필을 선염과 함께 사용해 사진 같은 사실성을 주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려졌다. 전통적인 초상화법과는 다른 사진 영상식이지만 묘사력과 필력에서 김은호의 초상화

역량을 잘 보여준다.

<순종황제 인물상>은 초본이지만 얼굴은 세밀하게 그렸다.

초상화는 원래 정본 제작에 앞서 초본을 먼저 그리는데 옷 부분은 형태만 잡지만 얼굴은 종이 뒷면을 백색 안료로 칠해 얼굴색을 은은하게 하는 배채(背彩)까지 하며 정본 못지않게 공을 들인다. 의뢰한 측에 초본이 합격되어야 정본으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델을 보고 그리는 것도 초본을 그릴 때다. 그래서 초본이 더 생동감 있는 경우도 있다. 전통적으로 초상화의 화법은 이목구비를 비롯해 얼굴 생김새가 닮아야 함은 물론 인물의 내면 세계까지 외모에서 나타나는 ‘진신(傳神)’을 중시했다.

동양화 신세대의 일본화풍 미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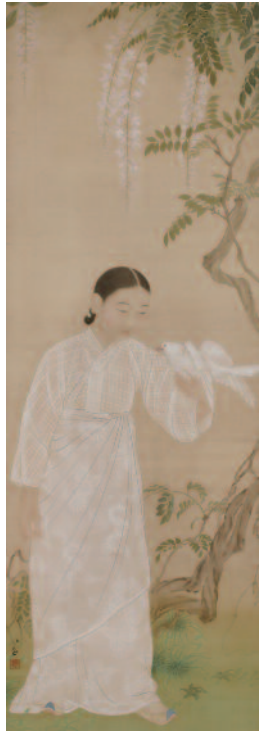
스무 살에 용안을 그린 어용화사가 되어 이당으로 호를 받은 김은호는 윤덕영, 윤택영, 민병석, 이희원, 민영휘 등 서울 장안 유력 인사들의 초상화 주문을 받았고, 광복이후에도 역사 인물의

공식 영정 등을 비롯해 초상화를 많이 그렸다.

1920년에는 이상범, 노수현, 오일영, 이용우 등과 함께 창덕궁 대조전 벽화 제작에 참여했고, 1922년부터 시작된 조선미술전람회에 채색인물화와 화조화로 입상을 거듭하며 대중적인 인기도 높았다.

김은호는 그의 재능을 아꼈던 서화애호가 단우(丹宇) 이용문의 후원으로 1925년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3년간 머물며 견문을 넓히고 실력을 쌓게 된다. 유키 소메이(1875-1957)에게 일본화를 배우고, 동경미술학교에 청강생으로 다니며 일본의 관전(官展)인 제국미술전람회 일본화부에 출품해 조선인 최초로 입상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화는 중국의 복종화를 일본식으로 발전시켜 이른바 몽룡체라고 하는 부드러운 채색법과 정밀한 묘사법의 화풍이었다. 김은호는 이러한 일본화를 배워 자기 식으로 발전시켰다.

김은호는 일본 유학 후 일본화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새로운 감각의 미인그림을 그려 인기를 끌었다. <미인도>는 등나무를 배경으로 흰 개량식



김은호, <미인도>
비단에 채색, 117×41.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복을 입은 여인이 하얀 새를 손에 얹고 바라보는 모습이다. 섬세한 세필로 불투명한 흰색 호분을 활용해 새의 깃털과 날개를 감각적으로 표현했고, 치마와 저고리의 각기 다른 문양 또한 치밀하면서도 단정하게 묘사했다. 등나무의 줄기와 잎 꽃 등을 리드미컬하게 배치한 잘 짜인 구도와 세련된 기교의 필선이 장식적인 느낌을 강하게 준다.

〈미인도〉는 김은호가 일본에 유학 중인 1927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한 여인 좌상 〈간성(看星)〉(삼성미술관리움 소장)과 유사해 30대 중반 무렵의 그림으로 여겨진다. 나무 아래 서있는 수하미인(樹下美人)이라는 주제, 허실의 여백을 나무줄기로 배치한 교묘한 공간 구성, 하얀 새를 소품으로 활용한 여성적 정감의 투사, 피부 표현과 잔디의 몽롱채 채색 기법 등은 일본 미인화의 자극을 소화한 김은호의 역량을 잘 드러내준다. 일제 강점기 채색인물화의 큰 흐름이 된 미인화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왼쪽 아래에 ‘이당(以堂) 사(寫)’라고 써 넣었는데 김은호는 대부분의 서명을 이런 방식으로 했다.



김은호, 〈포대화상〉
1927년(36세), 종이에 채색
65.5×26.8cm, 호림박물관 소장

오세창이 지은 이름 낙청헌과 정인보가 지은 후소회

김은호는 초상화, 미인화뿐 아니라 신선과 불승 그림인 도석화도 많이 남겼다. 중국 오대 후량의 승려 계차(契此)를 그린 〈포대화상〉도 김은호가 즐겨 그린 도석화이다. 항상 지루를 가지고 다녀 포대화상으로 불리게 되었다.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녔는데 무엇이든 주는 대로 시주받아 포대에 넣어두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항상 웃는 얼굴이어서 소불(笑佛)이라는 별명이 있다. 늙은 곳이 곧 안방이어서 아무데서나 코를 고는 낙천적인 호인이었고 아이들이 배를 만지고 장난을 쳐도 그저 웃기만 했다고 한다.

거리에 살며 서민들과, 아이들과 함께 했던 포대화상은 민간에서 사랑받아 중국에서는 재신(財神)으로 일본에서는 칠복신(七福神)의 하나로 모셔진다. 포대화상은 뚱뚱한 몸집에 풍선처럼 늘어진 배를 가리지도 않고 배꼽을 드러낸 배불뚝이 모습의 조각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림으로는 선종화(禪宗畵) 양식에 따라 단숨에 그은 몇 번의 붓질로 빠르고 함축적으로 그려진다. 달마도처럼.

그런데 김은호의 〈포대화상〉은 지팡이와 포대 등에 생략적인 붓질을 활용하면서도 잘 계산된 농담의 웃 표현이나 피부의 미묘한 담채, 바닥의 풀 등은 그의 미인도처럼 섬세해 선종화의 감필법(減筆法)과 미인화의 일본화풍이 어울려 김은호 식의 특이한 포대화상이 되었다.

김은호는 1915년 4년 만에 서화미술회 강습소 화과(畵科)를 졸업하고 선생님의 권유로 3년을 더 서과(書科)에서 계속 공부해 글씨도 잘 썼다. 김은호의 자필 화제는 다음과 같다.

행야포대(行也布袋) 좌야포대(坐也布袋)
방하포대(放下布袋) 하등자재(何等自在) 정묘(丁卯) 동절(冬節) 이당(以堂) 사(寫)

걸으면서도 수행하는 포대화상, 앉아 있을 때도 수행하는 포대화상

모든 것을 내려놓은 포대화상, 어찌 그리도 자유자재하신가

포대화상과 관련되는 많은 계승과 문학 작품 가운데 남송 악가(岳珂)의 「포대화상승(布袋和尚頌)」이다. ‘이당(以堂) 사(寫)’로 서명했고 머리도장은 〈촌심천고(寸心千古)〉, 낙관 인장은 〈김은호인(金殷鎬印)〉과 〈낙청헌(絡靑軒)〉이다.

낙청헌은 서울 종로에 있던 김은호의 집 이름이자 화실 이름이다. ‘이을 낙(絡)’과 ‘푸를 청(靑)’으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위창 오세창이다. 김은호의 낙청헌에는 제자들, 서화 애호가들이 많이 드나들었다. 김은호의 제자들이 1936년 1월 동문 모임을 만들었다. 김은호는 기뻐하며 이름을 지어주려 했지만 좋은 이름이 떠오르지 않자 자주 놀러오던 위당(爲堂) 정인보에게 부탁했다. 정인보는 『논어』에 그림을 언급한 유일한 구절인 ‘회사후소(繪事後素)’에서 딴 후소회로 지어주었다. 정인보는 밝고 깨끗한 정신이 화가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었다.

후소회는 1936년 가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동문전을 열었다. 백운문, 김기창, 장우성 이유태 등 1930년대부터 조선미술전람회에 등단한 제자들이 중심이 되었고 한유동, 조중현, 이석호, 노진식, 조용승, 장운봉, 정도화 등이 창립전에 출품했다. 이미 일가로 대접받는 신예들이었다. 김은호의 제자들은 1942년 조선미술전람회 동양화부 입선작 60점 가운데 21점이나 차지할 정도로 화단에 대거 진출하고 있었다. 낙청헌에는 김은호의 청년 제자들 뿐 아니라 전직 관료, 사업가 등 취미생들도 드나들며 그림을 배웠다. 이들이 모임을 이루게 되자 김은호는 자신의 호 ‘이(以)’자에 ‘묵(墨)’를 붙여 이묵회로 이름을 지었고 1941년 이들도 회원전을 열었다. 김은호는 1924년 고려미술원 연구회에서도 가르쳤고, 1937년에는 조선미술원을 설립하는 등 동양화의 저변 확대와 후진 양성에 꾸준히 기여했다.

오세창은 낙청의 청(靑)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다. 청년으로 보면 제자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 그림을 뜻하는 단청(丹靑)의 청(靑)으로 해석하면 옛 사람의 화법을 이어나간다는 뜻이 된다고 설명했다. 낙청헌은 동양과 서양, 옛것과 새것, 전통과 모더니 공존하던 근대기에 서화의 맥을 이어준 중요한 보루였다. 젊은 세대로 계속 이어지라는 오세창의 이름대로 김은호의 제자들은 세대를 거듭해 2019년 제48회 후소회전을 열었다. 최초이자 최장 동문전이다.

인기화가의 소품, 참새그림

젊은 여용화사로서,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 각광받은 채색화가로서 김은호는 초상화와 인물화, 도석화 뿐 만 아니라 산수, 사군자, 화조, 영모, 풍속 등 모든 장르를 다 소화했다. 심지어 유화도 그렸는데 1926년 작 〈자화상〉이 남아있다. 부채그림을 비롯해 가까운 지인들의 요청에 응할 때 즐겨 그렸던 소품의 소재 중 참새가 있다. 조그만 크기에 깃털 색도 수수한 참새는 지금도 주변에 흔히 보이는 텃새지만 그림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김은호만큼 참새를 즐겨 그린 화가가 없어 참새를 화조화의 한 화재(畵材)로 유행시킨 것은 김은호인 것 같다. 김은호는 젊은 시절부터 참새를 즐겨 그렸고 그의 제자들도 김은호 풍으로 참새그림을 많이 그렸다.



김은호, 〈참새〉
종이에 담채, 14.5×46.8cm
호림박물관 소장

〈참새〉는 버드나무 가지를 가로, 세로로 부채꼴에 따라 배치하고 세 마리 참새를 그렸다. 오른쪽 아래에는 꽃이 핀 복숭아 가지를 더해 구성의 밀도를 높였고, 참새들 사이의 허공에 벌 한 마리를 그려 넣어 생동감을 고조시켰다. 바람에 흔들리는 듯 부드럽게 나부끼는 버들잎과 휘어진 가지, 담채의 색면에 몇 번 필선을 가해 단숨에 그린 참새 등 몰골법을 구사한 필치는 그의 노련한 솜씨를 잘 보여준다. 화제는 이렇다.

도홍유록미신청(桃紅柳綠媚新晴)
호조비래전호성(好鳥飛來轉好聲) 이당(以堂) 사(寫)

붉은 복사꽃 푸른 버들 비 개어 맑으니 어여쁘고
예쁜 새 날아오니 더욱 소리가 좋구나

김은호의 일본식 이름은 쓰루야마 마사시노기, 곧 학산은호(鶴山殷鎬)였다.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일본식 이름을 지은 조선인들이 많아졌고, 끝까지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김은호는 1937년 ‘국방헌금 조달과 황군 원호’를 위해 귀족, 관료 부인들이 주축을 이룬 여성단체 애국금차회(愛國金鈔會)의 요청으로 〈금차 봉납도(金鈔奉納圖)〉를 그렸고, 일제 군국주의를 고무하는 미술 활동을 했다. 동시에 젊을 때 삼일운동이 일어나자 거리에 나가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독립신문을 배달하다 일경에 체포되어 1년형을 언도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다 병보석으로 11개월 만에 출옥한 것도 사실이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예술관은 작품과 작가를 별개의 존재로 보지 않았다. 작품의 예술적 성취 못지않게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작가를 판단했다. 작품과 작가 또한 한 공동체의 공동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격주의를 과도하게 예술에 적용하는 것 또한 유일한 잣대는 아닐 것 같다.

커뮤니티 아트 5

아카데미즘이라는
성채citadel를 넘어

이강민
울산미학연구소'봄'대표/울산대겸임교수

지난 호에서 우리는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주지하다시피 문화민주화는 고급예술, 엘리트문화를 대중에게 전달 혹은 접근시키는 것인 반면, 문화민주주의는 대중이 직접 문화와 예술을 만들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사람들의 예술 참여는 2000년대 들어 한국문화정책에 급격하게 도입되었다. 공공미술 뿐 아니라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실천 영역 등에서 커뮤니티 아트라는 용어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그림 1) 그림에도 아직도 지방의 문화행정과 문화기반 시설에서는 대중들의 예술 참여를 단지 개인의 취미활동으로서 동호회 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국민의 문화권 확대에 장애를 만들고 있다.

1999년, 영국은 2차 대전을 치르는 중에 ‘음악 및 예술 진흥위원회’(CEMA: Council for the Encouragement of Music and the Arts)을 설립한다. 그런데 CEMA의 목표는 영국 국민의 전쟁 상처를 위로 하기 위해 ‘기존 예술가들’ 작품 활동 지원과 ‘보통사람들’ 자신의 예술 작품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CEMA의 수장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보통사람들의 예술참여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케인즈는 ‘보통사람들에게서 위대한 예술이 탄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케인즈의 이러한 확신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필자는 그 확신의 출처를 세 가지로 본다.

아카데미즘 :
독점적 지원과 보은의 체계

아카데미즘이란 17세기 프랑스에서 정립된 미술계의 메인 스트림이다. 예술 작품 창조에 있어 형식적 측면에서 정확한 인체의 비율, 데생 그리고 원근법과 같은 과거 신고전주의 기법을 사용할 것과 함께 역사·신화·종교적인 내용의 표현을 규범으로 추종하는 회화와 조각, 건축 스타일에 나타난 양식을 총칭한다. (그림 2) 하지만 아카데미즘은 단지 특정한 양식에 대한 규범이나 가치 평가 기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카데미즘은 국가의 독점적인 후원과 그 결과로서 국가에 대한 독점적 권위의 인증 체계이기 때문이다.

아카데미(academy)는 고대도시 아테네에 플라톤이 세운 학교(아카데미아)에서 유래한다. 그의 학교는 주로 철학과 수학, 음악, 천문학 및 수사학을 가르쳐,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그런데 지난 호에서 말했듯이 플라톤에게서 국가를 통치 할 수 있는 신분은 철학자-왕이다. 따라서 그의 아카데미는 최고 계층의 청년들이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배양하기 위한 엘리트 양성학교라고 하겠다.

프랑스 아카데미즘 역시 프랑스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그 배경으로 한다. 프랑스 르네상스는 프랑수아 1세(François I, 1494~1547)와 그의 둘째 아들 앙리 2세(Henri II, 1519~1559) 같은 왕들에게 고용된 화가와 조각가들의 시대를 말한다. 프랑수아 1세는 이탈리아 예술 광이었다. 그는 집권 시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같은



그림1) 커뮤니티 아트는 예술가와 보통사람들의 협력으로 만드는 예술로, 초기에는 공공미술의 영역에서 시작하여, 취미공동체·마을공동체·도시재생에서 주민주체화사업까지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아래그림 중 위쪽그림은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 있는 빈민가 디자인 프라자 칸타오(2011), 중단 왼쪽그림은 서울시 강동구 문화재단에서 추진한 엄마들을 위한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2016), 중단오른쪽그림은 서울시 마포문화재단에서 기획한마포 꿈의극단, 맨아래그림은 김월식 작가 공동체 참여 예술, 다리가 세 개인 테이블



그림2) 푸생(Poussin Nicolas), 〈아르카디아의 목자들〉(1637-1638). 푸생은 프랑스 아카데미즘을 확립한 고전주의의 대가였다. 그는 신화와 역사, 성사에서 고전 세계를 재현을 꾸준히 추구했다. 아르카디아는 그리스인들이 숭배하는 땅이다. 하지만 그 영광스런 땅, '아르카디아에도 죽음이 있다'라는 글귀를 보게 함으로써, 겸손한 인간의 덕을 말하고 있다.

출처 ▶ <http://cfs2.blog.daum.net/image/23/blog/2007/05/16/16/32/464ab38f11767&filename=The%20Shepherds%20of%20Arcadia.jpg>



그림3) 바사리, 〈앙리2세와카트린의 결혼식〉(1550년 경), 피렌체, 베키오 궁전 소장. 캐서린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메디치 가문의 상속인이었다.

출처 ▶ https://p4.storage.canalblog.com/45/31/291893/27031840_p.jpg

쟁점	선이나 색이나	자연이나 현실이나	재현이나 표현이나
사조	푸생과 vs. 루벤스와		
	신고전주의 vs. 낭만주의	신고전주의 vs. 사실주의(&인상주의)	
		바르비종파 vs. 사실주의	사실주의 vs. 인상주의

그림4) 아카데미즘 미술에서 논쟁들



그림5) 테오도르 제리코, 〈메두사의 뗏목〉(1818-1819), 루브르 미술관. 난파된 배를 뜯어 만든 뗏목, 그로테스크한 장면 묘사, 시체를 뜯어 먹으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역동적인 구도는 온갖 난관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위대한 인간성을 보여준과 동시에 자신들을 버린 선장과 장교, 그리고 국가에 대한 조롱처럼 느껴지게 한다.

출처 ▶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1/15/JEAN_LOUIS_TH%C3%89ODORE_G%C3%89RICAULT_-_La_Balsa_de_la_Medusa_%28Museo_del_Louvre%2C_1818-19%29.jpg/1280px-JEAN_LOUIS_TH%C3%89ODORE_G%C3%89RICAULT_-_La_Balsa_de_la_Medusa_%28Museo_del_Louvre%2C_1818-19%29.jpg



그림6) 카스파르 다피트 프리드리히, 〈안개위의 방랑자〉(1817-18)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에 기반한 프랑스대혁명과 산업화과정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을 위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상상력, 자연회귀 등을 추구함으로써 타락한 현실에 맞서고자 했다. 그림에서도 명료한 선이 아니라 험한 필치를 통해 내면의 감정을 한껏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숭고한 자연에

맞서는 위대한 인간의 면모를 느끼게 한다.

출처 ▶ http://www.theartist.co.kr/news/photo/201510/1685_7870_2854.jpg

대가들을 파리로 초빙하여 건축축성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앙리 2세는 왕권강화를 위해 예술을 활용했는데, 화려한 행차와 개선문과 같은 웅장한 건축물, 그리고 이를 찬양하기 위해 시와 음악을 동원했다. 당연히 이렇게 동원된 예술에 의해 국가의 권위 또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다.

앙리 2세의 예술 정치는 그가 죽고 난 이후, 그의 부인인 메디치 가문의 카트린(Caterina Maria Romula di Lorenzo de Medici)에 의해 지속되었다.(그림 3)이것으로 이탈리아에서 쇠퇴한 르네상스는 프랑스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는데, 이것이 프랑스 아카데미즘의 시작이 되었다. 르네상스라는 말이 이탈리아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로 정립된 사정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문제는 아카데미즘이 당대의 우월한 예술 규범을 총칭하는 말이지만, 예술의 규범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기 때문에, 아카데미즘은 규범 그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미즘은 당대의 주류 예술 규범을 장려하는 것이며,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것은 새로운 규범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된다. 케인즈가 가진 혁신의 시작은 여기서 부터 출발한다.

낭만주의 : 위대한 천재의 탄생

19세기 초, 낭만주의(Romanticism)의 도래는 전통적인 아카데미즘에 새로운 규범을 제공했다. 르네상스는 본시 신(God)의 자리에 인간(Human)을 두고자 한 운동이다. 신고전주의의 르네상스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 선 중심의 미술규범이라면 낭만주의는 인간의 감성, 즉 인간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색채 중심의 미술규범을 낳았다. (그림 4)

선(line)은 형태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데 유리하며, 반대로 색(color)은 감정의 전달에 유리하다. 낭만주의는 구질서를 재생산하는 이성적 인간과 현실 재현을 반대하고, 인간 내면으로부터 환상, 공포와 광기와 같은 감성적 표현을 통해 지배자들의 위선을 폭로하기 시작한다. (그림 5) 낭만주의의 규범에 의해 신고전주의 아카데미즘은 여지없이 전복되었다. 낭만주의는 고전주의의 예술 규범인 캐논(canon)을 허물고, ‘주의’(ism)가 사라지는 모더니즘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런데 낭만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고대 이래로 신의 계획 속에서만

존재했던 상상력을 인간 자신의 상상력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이다. 즉 낭만주의 이전에 인간의 상상력은 단지 미신이나 과대망상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칸트는 상상력을 이미지를 종합하고 변형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제시했다. 칸트의 제안은 당시 상승하는 부르주아의 자유를 대변할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신(God)을 배경으로 삼은 왕과 귀족 계급과 달리, 신흥 부르주아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대변해줄 새로운 근거가 필요했는데, 칸트의 상상력은 인간의 천재적 능력을 주장함으로써 부르주아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

(그림 6)

문제는 이때부터 창조가 인간의 솜씨로 내려왔지만, 예술에서 창조가 평범한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예술가의 창조로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신화와 그 역사를 이상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고전주의적 아카데미는 낭만주의 예술운동에 의해 여지없이 물러나고, 위대한 천재, 신적 창조자로서 예술가라는 새로운 아카데미즘이 탄생한다.

리비스주의(Leavisism) : 대중문화에 저항하는 무기

리비스(F.R. Leavis)는 자신의 저서 『위대한 전통』(The Great Tradition)의 첫머리에서 “영국에서 위대한 소설가는 제인 오스틴(Jane Austen), 조지 엘리엇(George Eliot), 헨리 제임스(Henry James), 조셉 콘래드(Joseph Conrad)”라고 썼다.

이런 독단적인 선언의 뿌리는 유럽의 문화가 고대 아테네의 계승자이며, 세계 어떤 문화보다도 발전되었다고 보는 19세기 후반의 사회적 다윈니즘(Social Darwinism)에 있다. 사회적 다윈니즘이란 다윈의 생물학, 즉 적자생존의 원리를 인간 사회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써, 사회 역시 우등한 유전자(문화)에 의해 유지·존속된다는 이론이다. (그림 7)

이들의 주장은 “모든 국가나 민족들이 셰익스피어나 베토벤의 위대함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결코 그들은 셰익스피어나 베토벤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셰익스피어와 베토벤을 가진 영국과 독일과 같은 유럽이야 말로 세계의 중심이며, 이 우수한 문명을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보급하는 것, 즉 문명화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신의 사랑이며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문화의 보급과정은 식민지의 문화적 정체성을 파괴하고 그 폐허에 자신들의 문화를 심는 것이었다. 따라서 문화의 전파는

유럽인들이 보기에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식민지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존재가 부정되고 소멸되는 정복 과정일 뿐이다. (그림 8)

리비스주의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산업화와 함께 범람하는 대중문화의 혼란과 무질서를 방어하고자 했다. 리비스주의는 질 낮고 인기에만 영합한 대중문화가 노동자들을 방종과 난폭한 무정부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Matthew Amold), 혹은 보상과 오락으로 사람들을 중독 시키기 때문에(Q.D. Leavis) 소수에 의해 유지되는 진정한 문화를 통해 건전하고 도덕적인 질서를 유지코자 했다. 리비스주의는 문화가 소수가 아니라 대중들의 인기투표로 대체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그림 9) 케인즈는 이러한 맥락에서 보통사람들의 예술참여를 폐지하고, 위대한 예술을 위해 정책을 추진했다. 즉 케인즈에게는 수만 송이의 민들레보다는 한 송이의 장미가 더 귀중했던 것이다.

성채를 넘어, 다른 표준(another standard)을 위하여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는 예술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하는 예술이다. 커뮤니티 아트의 이러한 정신과 지향은 아래 문화민주주의 선언문(The Shelton Trust: London, 1986)에 잘 나타나 있다.

문화란 생각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이해를 이용하는 능력을 통제한다. 모든 공동체와 계급이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왔지만, 오늘날 현실은 지배 권력이 자본주의의 우월한 경제력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문화만 선택적으로 유포함으로써 자신들의 문화에 의해 우리가 길들여지길 바란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의해 만들어 지도록,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만들 권리를 주장한다.

선언문에 따르면, 커뮤니티 아트는 ‘문화가 단지 특정한 사람들의 격식을 모방하는 장식품’이라는 견해, ‘문화가 미개한 민족에게 베푸는 은총’이라는 제국주의적 오만함, 그리고 ‘위대한 문화와 진정한 예술은 소수에 의해 유지된다’는 엘리트주의 문화관을 부정하는 예술 정신이며, 스스로 문화와 예술 창조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예술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커뮤니티 아트는 특정한 문화를 유통시킴으로서, 타인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성채에 대해 도전이다.



출처 ► <https://www.insight.co.kr/news/124189>

그림7> 준비학살게임. 어쩌면 리비스주의는 대중문화를 노동자들을 감염시키는 좀비 바이러스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출처 ► <http://cfile23.uf.tistory.com/image/137A68404F46251C2A63A9>



그림8> 낭만주의를 계승한 리비스주의는 자본주의의 타락성을 비판하는 사회적 성격을 함축하는 유일한 문화비평이었다. 하지만 리비스주의는 문화 창조에서 대중들의 창조적 역할을 보지 못했다. 1950년대 리처드 호가든이나 레이몬드 윌리엄스, E.P. 톰슨, 스튜어트 홀 등 신좌파 문화주의는 ‘문화란 노동계급을 비롯한 보통사람들이 만든다’는 주장을 통해 리비스주의에 대항했다. 이들의 주장은 68혁명 이후, 커뮤니티 아트와 문화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으며, 오늘날 ‘문화 연구’(Cultural studies)라는 대중문화 연구의 주류 학문으로 정립되었다.

그리고 커뮤니티 아트의 도전은 문화에 대한 다른 표준 수립을 위해 나아갔으며, 오늘날 문화정책의 핵심 교리가 되는 문화다양성 주장의 원조라 하겠다.

박지운의 오페라와 인생 15 | 박지운
오페라 지휘자 / 오페라 작곡가

가짜뉴스

금세기 최고의 바이러스 쓰나미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요즘, 이른바 각종 음모론, 진짜뉴스, 가짜뉴스, 카더라 통신 등이 정신없이 난무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페이크 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저마다의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과 느낌을 가지고 대처해야하는 소위 ‘각자도생’의 시대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맞을 줄 그 누가 과연 예상했을까?

성경에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된 자만 혼인잔치에 앉을 것”이란 구절이 구구절절이 재택근무로 답답해 진 가슴에 울려 퍼진다.

필자가 세르비아 연주를 하고 돌아 온 후 1주일이 지나서 이탈리아에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내에도 들려 오기 시작했다.

게다가 곧바로 필자의 주 근무지인 김해시립합창단에서도 재택근무 결정이 내려졌고, 필자가 지휘로 섬기고 있는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보는 바람에 출석을 하지 못하고, 연락조차 거의 하지 않는 분위기이니 일부 지인 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셨나 보다.

어느날 ‘필자가 유럽을 다녀오자마자 자가격리 당했다..심지어... 확진자다’ 등등의 가짜뉴스가 살짝 교회에서 돌았다고 어떤 분들이 조심스럽고도 걱정스럽게 귀뜸을 해 주셨다.

아니??.. 기침한번 한 적 없고, 미열 한번 오른 적 없는 필자가 그런 가짜뉴스의 도마 위에 오를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마스크를 꼭 착용한 채...마트도 간혹 가고, 사람이 거의 없는 아파트 안의 도서관도 가고, 인파가 적은 곳을 골라가며 자전거도 열심히 타는 등, 나름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 요즘음인데 이게 웬 난데없는 ‘자가격리자 프레임’?

1. La calunnia
(한국에서는 ‘협담은 미풍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불려진다)

롯시니의 오페라 ‘Il barbiere di Siviglia-세비야의 이발사’의 1막을 보면, 자기 수양딸 ‘로지나’가 장성하여 여자로서의 매력을 뽐내자 수치도 모른 채 그녀와 결혼하려는 의사 ‘바르톨로’ 그리고 그것을 저지하려는 그녀를 사랑하는 백작 ‘알마비바’와 그를 도와주는 ‘피가로’가 나온다.

그런데 백작의 출현으로 인해 자기의 결혼계획이 틀어진 의사 ‘바르톨로’에게 한 명의 간사한 조력자가 따라붙는데 그가 바로 음악교사 ‘바질리오’이다. 바질리오는 우리가 영화 ‘기생충’에서 똑똑히 보았듯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백작을 쫓아버릴 방법을 말해주는데, 그 노래가 바로 유명 베이스 아리아 중 하나인 ‘la calunnia-협담은 미풍처럼’ 이다.

협담은 가벼운 바람이고. 굉장히 친절하고도 상쾌한 공기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섬세하고, 가볍게, 달콤하게 속삭이기 시작한답니다.

천천히, 천천히 미끄러지면서 휘파람 소리를 내며 낮은 목소리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의 귀에 쫄쫄하게 침투하죠.

그리고 머리와 뇌를 혼란스럽게 하고 부풀립니다. 입으로부터 소리가 나오고, 점점 커지고, 점점 힘을 얻습니다.

한 장소로부터 다른 곳으로 날아가고 천둥과 폭풍우처럼 숲속 가운데서 휘파람을 불며 소란을 일으키고 당신을 공포로 얼어붙게 만듭니다.

마침내 난폭하게 넘쳐흐르고, 터지고, 확산하고 배로 증가하고 폭발을 생산합니다. 대포의 타격처럼. 지진처럼. 대가를 폭격합니다.

협담을 당한 불쌍한 자는 약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대중의 비난 속에서 잔인한 운명처럼 죽어갑니다.

1816년 로마에서 초연된 오페라 부파 장르의 독보적인 이 위대한 작품에 은둔해 있던 한 아리아가 204년 후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소문과 가짜뉴스들의 그 ‘기원과 발생과 출발과 그 가공할 만한 전파력과 어쩌면...폭발 후의 그 처참한 결과까지 어찌 이리 코믹하면서도 간결하고 통렬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인가?

2. 나의노래

20살의 그녀 또한 신비로운 소문을 양산하는 타입이었다. 그 이유는 말수도 워낙 적는데다 일단 미모가 워낙 출중해서 과 동기, 선배들의 심장을 쿵광거리게 만드는 모양이었다. 게다가 우리학과 뿐 아니라, 타 단과 대학의 남학생들이 학교가 파할 즈이면 늘 우리 과 건물 앞을 서성이며 기웃기웃 대는 바람에 필자를 포함한 많은 우리 과 남학생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는 게 아닌가?

사정이 그렇다보니 “재는 어떨다 저떨다. 이랬다 카더라, 저랬다 카더라” 등의 질투성을 살짝 동반한 가짜뉴스가 끊임없이 그녀 주위를 맴돌았다.

근데 왜 하필 ‘떡대종고 힘세고 용기백배해 보이는 짐승 같은 라이벌’들이 부지기수인 그런 여학생을 필자는 좋아했을까?... 그렇게 좋아하는 내색조차 못하던 용기 없던 순진남은 35년 전의 3월 24일, 대학교 1학년 작곡과 첫 번째 전공과제인 ‘가곡’을 쓰려고 밤 7시경, 학교연습실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런데 ‘영원’같은 그 ‘순간’, 순진하고, 누구보다 용기 없던 약관의 젊은 녀석의 입과 손가락에선 이러한 노랫말과 멜로디와 화성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의노래- 박지운 시, 곡- 1985. 03/24

이 밤이 깊어갈수록 내 님이 그리운 것은
넷물이 별빛을 기다림 그것과 같은 것이라

내 노래 이어갈수록 내 님이 그리운 것은
귀뚜리 가을을 기다림 그것과 같은 것이라.

끊이지 않는 노래 내 노래뿐인가?
님을 사모하는 노래 내 노래뿐인가?

이 밤, 잊지 못해 부르는 내 노래여
내 님이 누우신 자리에 퍼져 가여라

내 님이 누우신 자리에 퍼져 가여라...

나의 인생에 들어온 첫 번째 가곡 ‘나의 노래’는 그렇게 그날 밤 연습실을 뛰쳐나와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고, 급기야 그 여학생도 어느 날 나의 연습실에 들어와 “이 곡 너무 좋다고.. 이런 곡 매 주 써주면 안되나?”고 하면서 얹은 미소를 남기고 방을 나가버렸다. 대구 신천 변에서 멀지않은 필자가 다닌 대학교의 음악과 건물 4층에서 작곡된 이 곡은 당시에 필자가 “무슨 무슨 전공, 누구, 누구를 위하여 썼다느니...가곡이 아니라고요다...심지어 필자의 곡이 아니다” 등등의 무수한(?) 가짜 뉴스를 양산해 내었고,,, 결국 세월이 흘러 흘러 필자의 첫 번째 오페라 ‘운수좋은날’의 메인 아리아와 라이트모티브가 되었고, 그렇게 신천 변에서 멀지않은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2011년 가을에 초연되었다.

한편, 그날 밤 필자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얹은 미소를 안겨주고 나가버린 그 여학생은 35년이 지났건만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코로나가 늦어도 여름이면 종식될 수도 있을것이란 뉴스가 들리는데, 이것만큼은 진짜 ‘가짜뉴스’가 아니었으면 정말로 좋겠다. 그래서 2020년 초의 빼앗긴 일상에 따뜻한 봄이 어서 돌아왔으면 진짜로 좋겠다.

천재 음악가를 무대로 재연하다 뮤지컬 '모차르트'

원종원
순천향대 공연영상학과 교수
뮤지컬 평론가
jwon@sch.ac.kr

사실 유럽에 오늘날과 같은 국가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나폴레옹 황제 이후의 일이다. 통일된 이탈리아나 독일, 하나의 나라가 된 벨기에 등은 나폴레옹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민족주의의 결과물들이다.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이전의 역사 속에선 부르봉 왕가의 프랑스와 더불어 제국주의 시절 유럽의 한 축을 이뤘던 나라가 있다. 바로 합스부르크 왕가의 오스트리아다. 오랜 세월 유럽의 강자로 군림했던 탓에 지금은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볼거리 가득한 유럽의 관광 대국으로 통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잘츠부르크는 가히 관광 명소라 불릴 만하다. 천혜의 자연과 고풍스런 시가지, 언덕 위 높이 자리한 옛 성곽의 모습도 인상적이지만, 사실 세계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우선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때문이다. 이야기의 배경이자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했던 영화의 제작이 바로 이 도시를 배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매 시간 시내에서 출발하는 '사운드 오브 뮤직' 관광 투어버스는 흥겨운 뮤지컬 넘버의 멜로디와 함께 영화 촬영지로 설 새 없이 관광객들을 실어 나른다. 영화가 세상에 등장한 지 벌써 반백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건만, 잘 만든 영상물 하나가 시대를 초월하며 잉태해낼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실감나게 만들어 준다.



정작 잘츠부르크 사람들은 '사운드 오브 뮤직'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거짓말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첫 장면 알프스 언덕에서 마리아 수녀는 노래를 부르다 수녀원의 종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장면이 등장한다. 문제는 이 언덕과 수녀원이 도시 한쪽 끝과 반대쪽 끝이라는 점이다. 종소리를 들었을 리도 만무하지만, 저녁기도 시간에 맞춰 달려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폰 트랩 대령의 저택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한 채가 아닌 여러 채의 저택에서 촬영을 했다. 정문은 이 집이고 앞뜰은 저 집 것이며, 정원은 또 다른 집이었다는 사실은 이 뮤지컬에 심취했던 애호가에선 배신감마저 안겨준다. 물론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했던 이 작품의 대중적 인기가 반영된 재미난 뒷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잘츠부르크의 매력은 이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규모나 수준면에서 감히 '사운드 오브 뮤직'이 범접조차 하기 힘든 또 다른 탁월한 문화자원이 있다. 바로 모차르트다.

잘츠부르크는 그가 태어나 청년시절을 보냈던 장소다. 덕분에 이 도시를 찾으면 모차르트의 생가나 유년시절 가지고 놀았다는 건반악기, 청년시절 아버지의 강요로 근무했던 잘츠부르크 성당의 오르간 등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심지어 모차르트와는 실제 아무 관련조차 없는 초콜릿마저도 그의 초상화를 붙인 채 '모차르트 초콜릿'이란 이름으로 방문객들 사이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다. 젊은 모차르트는 짧은 생애동안 잘츠부르크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지만, 이 도시는 오히려 지금까지도 모차르트를 떠나보내지 않은 채 흠모와 연정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셈이다. 무대용 뮤지컬로 만들어진 '모차르트'도 재미있는 문화상품이나 예술자원이다. 으레 뮤지컬하면 무조건 반사처럼 브로드웨이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작품은 의심의 여지없이 당연히 모차르트의 고국인 오스트리아산 뮤지컬이다. 친절하게 이야기를 설명하는 극 전개방식이 대부분인 영미권 뮤지컬 작품들과 달리, 이 뮤지컬은

모차르트를 새겨놓은 찰츠부르크의 기념품 가게 물건들처럼 장면과 장면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철학적 메시지를 촘촘히 박아 넣는 세련된 포장술을 보여준다. 마치 '대중음악으로 만든 오페라' 같다는 느낌도 떠오른다. 물론 오랜 세월 클래식 음악의 본령으로 군림하던 역사와 전통이 반영된 현상이자 그들의 음악적 자존심의 표현인 셈이다. 국내에서 처음 막을 올렸던 뮤지컬 모차르트는 기록적인 흥행으로도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적도 있다. 좀체 팔리지 않는다는 세종문화회관 3층 객석마저도 깨끗이

있는지를 여실히 입증시켜준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사실 이 작품의 진짜 감상 포인트는 따로 있다. 바로 무대라는 가상공간이 구현해내는 극적 상상력이다. 우선 찢어진 청바지에 길게 땀은 레게 머리를 한 모차르트가 그렇다. 물론 요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새롭게 정의된 천재 음악가의 이미지다. 뮤지컬 무대 위에는 별난 존재도 등장한다. 모차르트의 주변을 늘 맴돌며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꼬마 아마데다. 모차르트의 분신이자 창조의 원천인 꼬마 아마데는 실존인물이 아닌 뮤지컬의 크리에이티브 팀이 작품을 구상하며 만들어낸 상상속 캐릭터다.



매진을 기록하는 진기록을 세웠기 때문이다. 바로 '시아준수'로 유명한 동방신기 출신의 아이돌 스타 김준수가 주인공을 등장하면서 겪게 된 일대 사건(?)이었다. 요즘 우리나라 대형 뮤지컬에는 아이돌 스타 한 두 명이 약방의 감초처럼 캐스팅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흔한데, 면밀히 따져보면 모차르트의 흥행신화가 불러온 새로운 한국 뮤지컬의 트렌드라 인정할만하다. 스타가 등장한다고 무조건 흥행이 보장되거나 작품성이 뛰어나지는 것은 아니지만, 궁합이 맞는 스타와 뮤지컬이 성공적으로 결합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거대해질 수

모차르트는 신동이라 불렸다. 천으로 눈을 가린 채 묘기 부리듯 오르간을 연주하거나 교향곡을 작곡하는 등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음악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보여 주변의 귀족들이나 재정후원자들로부터 감탄을 자아냈다. 물론 평범한 음악가의 삶을 살았던 아버지에게 있어 모차르트는 좋은 사업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귀족들 앞에 묘기부리는 듯 음악을 만들고 연주해야했던 그의 유년시절은 그 자체로 정신적인 압박과 무의식 속의 의무감을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모차르트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꼬마 아마데의 정체는 바로 이런 모차르트의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별스런 무대적 구현이자 해석인 셈이다. 모차르트의 팔목에서 피를 찍어내 오선지에 작곡을 하던 꼬마 아마데가 결국 뮤지컬의 마지막 장면 모차르트의 심장에 날카로운 펜촉을 꽂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은 그래서 의미심장한 이 뮤지컬만의 이미지라 할 수 있다. 결국 젊은 천재 모차르트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끊임 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만 했던 천재의 비애와 피를 짜내는 듯한 창작의 고통이라는 제작진의 해석이 반영된 무대인 셈이다. 뮤지컬 속에서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구체적으로 구현시켜주는 것은 다름 아닌 뮤지컬 넘버들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작곡을 하거나 연주를 하는 모습을 무대에서 그것도 라이브로 재연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다. 결국 화려한 선율의 뮤지컬 넘버와 이를 목 놓아 부르는 소름 돋는 가창력이 가장 어울리는 해결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덕분에 이 뮤지컬은 찢어지는 듯한 고음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풍부한 성량이 뒷받침되는 배우들에게 어울리는 작품이라는 고약한 별명을 얻게 됐다. 물론 성공적으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 남자 주인공이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전형적인 뮤지컬 작품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시아준수 신드롬으로도 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작품이지만 박은태라는 젊은 뮤지컬 스타를 발굴해낸 작품으로도 의의가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실제로 그가 무대 한가운데 서서 '내 운명 피하고 싶어'나 '나는 난 음악'을 노래할 때면 머리카락이 쭈뼛거리는 긴장과 환희를 느끼는 마니아 관객들이 많다. 음악감독을 맡았던 김문정 한세대 교수 역시 모차르트는 이단아 느낌의 락커 이미지가 작품의 이질적이고 비범한 재미를 잉태해낸다고 지적하며 "모차르트의 음악은 다른 뮤지컬 넘버들과 달리 기타의 굉음이나 락 발라드의 꺾적을 쫓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노래를 통해 그의 천재성을 구현해내려는 원작자의 의도가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지고 보면 유독 뮤지컬계에서 여러 차례 공연을 관람하고기도 기회만 있다면 다시 극장을 찾게 되는 '회전문 관객'이 많은 것도

이렇듯 음악이 주는 희열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모차르트가 소재인 뮤지컬이니 그의 관현악이나 클래식 선율을 뮤지컬 무대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하지만 뮤지컬 무대에서 원래 모차르트의 음악은 단지 소품처럼 몇몇 장면에서만 등장할 뿐, 거의 모든 노래는 뮤지컬을 위해 새롭게 작곡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모차르트와는 크게 상관없는 뮤지컬용 노래들이다. 요즘 문화산업에서 흔히 활용되는 원 소스 멀티 유즈의 마케팅 전략이 대부분 그러하듯 이런 부류의 문화적 파생상품에서 중요한 것은 원 소스의 대중성이나 유명도가 아닌 멀티 유즈 과정에서 보여지는 파격과 창조적 변신이다. 뮤지컬이 클래식 음악을 배제하고 현대적인 선율의 멜로디로 재포장된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시대적 코드로만 말하자면 뮤지컬 '모차르트'의 음악은 확실히 현대적인 감각을 듬뿍 품고 있는 요즘 문화상품이다. 간혹 사학자들은 과거나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문화상품들이 진실을 왜곡시킨다며 흥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 이런 부류의 문화적 산물들은 역사의 '재연'에 의미를 두기보다 이야기의 '창조적 재구성'에서 더 큰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다. 무대위 배경은 특정한 시대적 환경을 바탕에 두고 있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욕쟁이 세종대왕이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하려는 사대부와 대립하고, 신윤복이 남장 여자여서 김홍도와 사랑을 나눈다는 발칙한 상상은 그래서 흥미로운 예술세계의 실험이자 가정들이다. 국내에서 뮤지컬 '모차르트'는 '가장 잘 팔린' 흥행 뮤지컬이라는 수식어를 꼬리표처럼 붙이고 다닌다. 올해 등장할 앙코르 공연이 과연 지난 흥행 기록을 얼마나 갱신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자못 궁금해진다. 특히 모차르트보다 빅뱅이나 소녀시대가 더 친근한 요즘 세대들에게겐 기발한 발상의 전환이 더해진 뮤지컬속 이야기가 좋은 선물이자 자극이 될 것 같아 흥미롭다. 앙코르 무대의 막이 오르길 기다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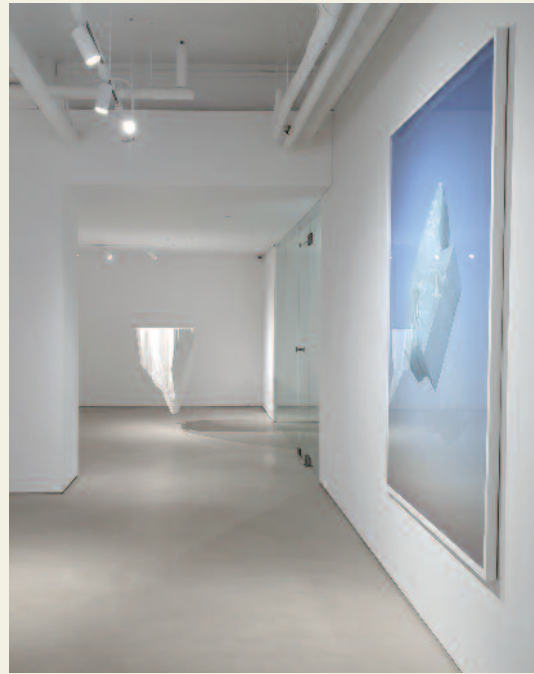
미학의 눈 - 작품해석과 감상 5

빙하가 떠있다.

남인숙
미학박사/미술평론

1. 빙하일까.

정갈한 공간 앞에 투명 유리벽 너머로 작품이 보인다. 유리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 풍경은 정갈함에 침묵을 더해 관람객을 현실에서 구해주는 어떤 휴식, 쉼을 선사한다. 〈경로의 단서들〉 전과는 달리 전시장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잠시 전시장 내부를 상상하면서 관람객으로서 숨을 고르며 ‘나의 경로’를 짚어 보는 것도 좋다. 어렵다고 하는 ‘현대’ 미술이 전시되거나 설치된 장소라면 더욱 더 작품과 어떻게 만날지, 새로운 만남을 위해 잠시나마 숨을 골라보는 것이 작품 감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곧 마주하게 될 작품에 대해서 그리고 작품을 제작한 작가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 마음을 여는 것이 결국은 작품 감상의 지름길이라면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물론 작품 감상에서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 의미도 없지만 말이다.



마치 빙하가 떠 있는 것 같다. 오른쪽 벽 〈경로-하강하는〉작품

전시장 바닥에는 도로망 같은 하얀 색 지도가 놓여 있다. 그 옆으로는 빙하를 연상시키는 형상의 흰 덩어리가 매달려 있다. 빙하를 떠올리는 순간 마치 전인 미답의 대지가 펼쳐질 것 같은 기대감과 신비함이 겹치면서 현재의 시간에서 벗어나게 된다. 천장과 바닥 사이에 매달려 중력에 저항하는 듯한 팽팽한 긴장 감도 자유로운 감을 더해준다. ‘빙하’라고 하지만 이는 순전히 주관적인 연상일 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다. 누구라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형상은 복합적인 이미지의 응축물 같기도 하다. 이 작품은 〈하얗고 평평한 기억〉이다.

전시장에 매달린 덩어리를 볼 때 ‘빙하’를 떠올리는 것처럼 무엇이라도 떠올린다면 우리는 작품으로 나아가는 고리(인터페이스)를 하나 잡은 셈이다. 이는 무엇이라 할지라도 작품과 관객을 연결시키는 단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눈앞에 놓인 순색의 덩어리에서 어떤 연상도 떠올리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할 때, 관람객은 ‘작품이 너무 어려워’라고 중얼거리며 뒤돌아 나와 버린다. 잠시 생각해보면 작품 감상의 어려움이란 관객의 몫이 늘어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렵다고 느낀 작품 앞에서 잠시 습관의 옷을 벗고 새로운 경험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도 작품 감상이 주는 선물 중 하나이다.



하얗고 평평한 기억

2. 지각의 풍경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품이 전시된 공간에 선뜻 들어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 않다.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라서 매우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품은 우리를 무엇보다도 감각적으로 끌어당겨야 하는데, 작가 자신이나 기획자는 관객이 이런 매력에 이끌리도록 작품을 배치한다. 감각적인 이끌림 속에서 관객에게 작품의 의미가 부각되도록 세심하게 동선이나 배치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빙하’를 연상하게 한 전시 〈경로의 단서들〉의 작가 이소영은 조소를 전공하고 독일에서 공부한 중견작가이다. 작가는 작품에 우리를 매우 감각적으로 주목시킨다. 작가는 우리의 지각이 얼마나 미세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섬세한 경험의 살아 있는 풍경을 우리에게 드러내 준다.

우리가 움직일 때 사실상 동시 발생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나 주변에 대한 지각은 우리의 활동을 감싸고 있는 공간과 분리될 수 없다. ‘앗- 뜨거워’ 했을 때 뜨거운 대상과 나의 지각, 그와 관련된 기억을 각자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질과 그에 대한 우리의 지각 그리고 기억은 이렇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서로 얽힌 채 동시에 통으로 발생하는 사건인 것이다. 작가는 바로 이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작업의 소재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간은 관념적인 공간이 아니다. 우리가 만지고 있는 물질이자 현실적인 공간으로서 우리의 지각과 즉시 연결되어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다. 다른 한편 이 공간은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된 공간이기도 하다. 매우 섬세한 지각의 풍경들은 곧장 우리 기억의 저장고에 쌓여 매 순간 그 기억이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기억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제 작가가 다루는 공간은 물질이자 현실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기억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매달린 흰색 덩어리는 바로 이런 공간을 상징화한 것이 아닐까 한다.

작가는 〈경로-하강하는〉에서 아침과 저녁노을을 합성하여 배경을 만들었다고 한다. 아침과 저녁 시간이 동시에 공존하는 하늘에는 공간 조각, 덩어리가 구름처럼 떠 있다. 작품 속의 구름 같은 공간 조각이 ‘빙하 같은’ 이 덩어리로

구체화된 것 같기도 하다. 〈경로-하강하는〉에 등장하고 있는 흰색의 공간 덩어리가 빙하 이미지를 반향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에게 ‘저 빙하 같은 것은 뭔가요?’라고 물어보니, 그것은 빙하가 아니라 바로 옆 바닥에 놓인 백색 지도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 지도의 대상이 된 지형이 내가 빙하라고 말한 덩어리의 가장 윗면을 이루는데, 덩어리 앞에 섰을 때 그 표면은 나의 눈높이에서 펼쳐진다. 내가 말한 빙하의 표면은 실제 지형의 지도 일부분이고 그 덩어리는 땅덩어리에 더 가까운 셈이다.

바닥에 놓인 지도(〈지도〉)는 작가의 기억 속에서 불러낸 지도이다. 〈지도〉는 외양상 객관적인 지도일 것 같지만 매우 주관적인 지도이다. 모양은 지도이지만 내용은 작가의 기억에서 불러낸 지도이고 몇 개의 지도 조각을 그럴듯하게 이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도〉는 실제이지만 기억으로부터 불러낸 가공된 지도이자 환상의 지도이기도 한 것이다.

〈경로-하강하는〉은 아침과 저녁 시간이 공존하는 기억의 공간이며, 〈하얗고 평평한 기억〉에서 연상한 빙하이미지, 실제 지도의 모양, 표면을 받치고 있는 땅덩어리 등은 사실상 작가와 관객의 기억 덩어리이기도 한 것이다. 작가는 도심의 지도를 탐색하고 작성해가고 싶었다고 말한다. 도심의 지도를

탐색하는 일은 사실 자신의 기억을 탐색하는 일이다. 전시된 〈지도〉를 보며 관객은 우리의 기억을 지도에 투사해 나의 지도로 새롭게 만들어 읽는다. 작가 덕분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합성물, 현실과 가상의 합성물을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알아차리게 된다. 또한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섬세한 지각의 풍경을 가공물의 한 가운데서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평소 주목하기 어려운 섬세한 지각의 풍경을 물질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보다 쉽게 우리의 감각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의 경험의 일부로 확장시킨다는 사실 그리고 이 과정에 참여한다는 사실에 작품 감상의 재미가 있는 것이다.

첫 인상에 빙하를 떠올리게 한, 매달린 덩어리는 내심으로 프로이트와 이드(Id), 미지의 대륙 무의식을 떠올리게 했다. 지도의 형상이지만 기억의 프리즘을 통과했고, 기억의 지도이지만 현실에 바탕을 두었기에 그리고 기억으로부터 무엇인가를 현실로 불러내는 매순간마다 ‘자기 자신’의 호출과 개입이 있었기에 더욱 더 프로이트나 베르그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들이 전시장을 방문한다면 밤새 수다를 떨었을 것도 같다. 이것처럼 어떤 것이 되었던 작품과 연결되는 단서를 나의 저장고에서 잡아 낼 수 만 있다면 그것을 단서로 우리는 작품을 만나고 작품 속으로 걸어 들어가 결국 나를 만나고 돌아오게 된다. 만약 작품과 만나는 방식이 이게 아니라면 어떨는지? 이 점은 중요하지 않다. 작품 속으로 나아가는 ‘경로의 단서’를 마련했다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문고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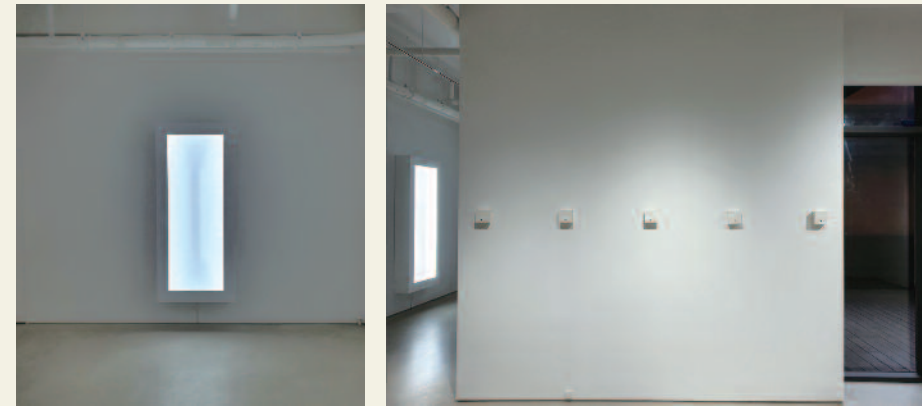
붙잡고 반복적인 관람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지각의 풍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변화에 따라 조정해가면 된다. 현대미술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3. 백색과 그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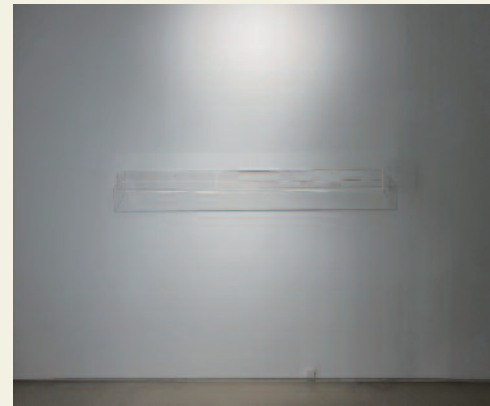
전시장에서 처음으로 관객을 맞이하는 작품들은 아주 미세하고 구체적인 지각의 풍경들이다. 제일 먼저 마주하는 작품은 족자 형태의 긴 화면인데 균질의 백색 화면이다.〈〈사라지는 출구〉〉라이트 박스 같은 작품을 마주하면 작품 화면 너머 멀리에서 희미한 그림자 같은 것이 보인다. 오래 동안 접어 두었다 펼친 종이의 모서리 같기도 하고 누렇게



왼쪽) 바닥에 놓인 지도, 오른쪽) 빙하로 보이는 덩어리 위 표면



왼 쪽) 〈사라지는 출구〉, 오른 쪽) 〈길을 잃지 않는 방법〉



빨간 경계선

바랜 흰 천의 모서리 같기도 하다. 경계가 모호한 그림자는 우리를 어떤 심연으로 이끈다. 24시간 편의점의 구김살 없는 밝음과 출구 없는 심연의 이미지가 한 작품에 함께 존재한다. 먹의 번짐과도 같은 화면 너머의 얼룩에서 왠지 모를 ‘출구 없음’이 전해지는 것 같다. ‘출구 없음’의 감각은 막연한 것 같지만 한편 구체적인 비애감 같기도 한데, 이런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작품이 매우 섬세하고 견고하다는 뜻이다. 섬세함은 작가의 전체 작품을 관통하는 능력인데, 〈사라지는 출구〉의 옆에 설치된 〈빨간 경계선〉과 〈길을 잃지 않는 방법〉에서도 잘 드러난다. 〈빨간 경계선〉은 투명 아크릴 박스 안에 빨간 줄이 팽팽하게 걸려 있다. 단순 명쾌하게도 단 ‘한 줄’이 작품이다. 이 얇은 빨간 줄은 세상의 모든 금지를 요약해둔 것 같기도 하고 ‘아드리아네의 붉은 실’처럼 가장 결정적인 세상의 모든 단서들을 요약한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애매성과 구체성이 공존하는 작품 옆에는 재미있게도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 설치되어 있다. 이 작품은 보통의 키 높이에 작은 사각상자가 일렬로 설치된 작품이다. 작품에 바짝 붙어서 지나가야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 작품 앞을 지나치면 ‘스윽-’하는 인기척이, ‘사악-’하는 지나가는 소리가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들린다. 작품은 우리의 경험 속에 항존하는 확실성과 불확실성에 대해 그리고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현장과 기억이 소환되는 경로들을 드러내고 있다. 공간과 지각 그리고 기억의 문제를 섬세하게 다루는 이소영의 작품은 앨리스의 시간처럼 전시장 안에서 작품만의 시간으로 머물 수 있게 해주면서 우리 지각의 창을 활짝 열어준다. 지각의 섬세함을 아주 살뜰하게 경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작가의 장점이자 작품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공연가이드

※ 공연일정 및 입장료는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연가이드

※ 공연일정 및 입장료는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07 2020

전시가이드

6. 1.~8. 29. (90일간)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II 부)	장소 상설전시장(갤러리 씬)	주최 울산문화예술회관	올해의 참여 작가 기증작품 총 44점(미술, 사진 등)을 3부로 나누어 전시
6. 30.~7. 5. (6일간) 제17회 울산전국서예문인화대전	장소 제1·2·3·4전시장	주최 울산서화예술진흥회	서예, 문인화, 한글, 한문, 문인화, 서각 등 각 분야의 입상작 350여점 전시
7. 7.~7. 12. (6일간) 제23회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장소 제1전시장	주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된 공예품 30여점 전시
7. 7.~7. 12. (6일간) 윤기동 사진전	장소 제2전시장	주최 개인	소우주를 통한 8개의 선과 테두리, 오행의 색 바탕의 사진작품 30여점
7. 7.~7. 12. (6일간) 제48회 울산서도회전	장소 제3전시장	주최 울산서도회	울산 최고(最古)의 서예단체인 서도회 회원들의 한글, 한문, 문인화 작품 60여점 전시
7. 7.~7. 12. (6일간) 제24회 경상일보 보도사진전	장소 제4전시장	주최 경상일보	지난 1년간의 각종 사건 사고, 현장의 찰나 등 경상일보 지면을 통해 독자의 눈을 사로잡은 보도사진 전시
7. 14.~7. 19. (6일간) 울산민중미술 33년전	장소 제1전시장	주최 울산노동역사관	민중미술의 역사적 변화와 노동미술의 다양한 구현과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변화를 포착하는 미술작품 60여점 전시
7. 14.~7. 19. (6일간) 제13회 먹물향기전	장소 제2전시장	주최 울산서예가협회	동양의 고전 논어, 채근담, 명심보감 등 글귀를 담은 서예작품 60여점 전시
7. 14.~7. 19. (6일간) 제12회 반구대전	장소 제3전시장	주최 울산서각협회	나무에 가훈, 좌우명 등 다양한 내용의 글과 그림을 새겨 넣어 마음을 다스리는 서각작품 60여점 전시
7. 14.~7. 19. (6일간) 서경희 개인전	장소 제4전시장	주최 개인	바다 속 화려한 산호초와 생명체들의 조화에 관점을 두고 매순간 재탄생하는 자연을 조형화한 현대미술 40여점 전시
7. 24. (11:00) 전원경의 그림 콘서트 (2회)	장소 소공연장	주최 울산문화예술회관	음악과 미술작품을 동시에 감상하는 인문학 콘서트
7. 21.~7. 26. (6일간) 울산 국제목판화 페스티벌	장소 제1·2·3·4전시장	주최 울산제일일보	한국, 대만, 유럽, 미국 등 국제적인 목판화 작가 100여명이 참여한 목판화 공예작품 130여점 전시
7. 29.~8. 3. (6일간) 영·호남 미술 교류전	장소 제2·3·4전시장	주최 울산미술협회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기념하여 영·호남의 시각예술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미술작품 300여점 전시

※ 전시일정 및 입장료는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08 2020

전시가이드

8. 1.~8. 30. (30일간) 초청기획전시 「색의 가장 크루즈 디에즈展」	장소 제1전시장	주최 울산문화예술회관	색과 빛의 설치, 회화 등 옴-키네틱 아트작품 총 16점 전시
8. 5.~8. 8. (4일간) 제17회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작품전	장소 제2·3전시장	주최 울산교육삼락회	회화, 문인화, 서예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복지관에서 취미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공모·심사 당선작 100여점 전시
8. 5.~8. 10. (6일간) 제12회 창작미술인협회전	장소 제4전시장	주최 창작미술인협회	한국화, 서양화, 문인화 등 여러 장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사실화와 구상, 비구상과 추상 등 현대회화 작품 45점 전시
8. 12.~8. 17. (6일간) 울산예술문화명인 8인전	장소 제2전시장	주최 울산예술문화명인회	한국예술문화명인 울산지회 소속 작가 8인의 조각, 섬유공예 등 다양한 분야 혼합 예술작품 35점 전시
8. 12.~8. 17. (6일간) 제14회 울산예술작가회 회원전	장소 제3전시장	주최 울산예술작가회	시각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울산 지역 작가들이 우리 삶의 터전인 울산이야기들을 작품으로 표현한 작품 40여점
8. 12.~8. 17. (6일간) 제43회 울산무지개 사진동호회전	장소 제4전시장	주최 울산무지개사진회	‘세상이야기 시즌 2’를 주제로 한 회원들의 자유 작품 50여점 전시
8. 19.~8. 24. (6일간) 제9회 청사연묵회전	장소 제2·3전시장	주최 청사연묵회	울산 지역 작가들의 획기적인 시도를 담아낸 문인화 · 한국화 60여점 전시
8. 19.~8. 24. (6일간) 울산구상작가회 정기전	장소 제4전시장	주최 울산구상작가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편견을 너머 예술로 함께 소통하고 장애인 미술인들에게 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미술작품 50여점
8. 26.~8. 31. (6일간) 삼동도예작가협의회의 작품전	장소 제2전시장	주최 삼동도예작가협의회	전통가마의 발원지인 울주군 삼동면에서 활동하는 도예 작가들의 전통 기법을 통한 지역 교유의 도예작품 30여점 전시
8. 26.~8. 31. (6일간) 제16회 안남용 개인전	장소 제3전시장	주최 개인	작가의 지난 10여년간 20여개국의 여행을 통해 느리게 천천히 대상과 인물의 삶을 바라보고 사유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진작품 40여점 전시
8. 26.~8. 31. (6일간) 심상철 개인전	장소 제4전시장	주최 개인	세포와 미시세계의 생명미술을 주제로 한 바이오아트 시각미술 45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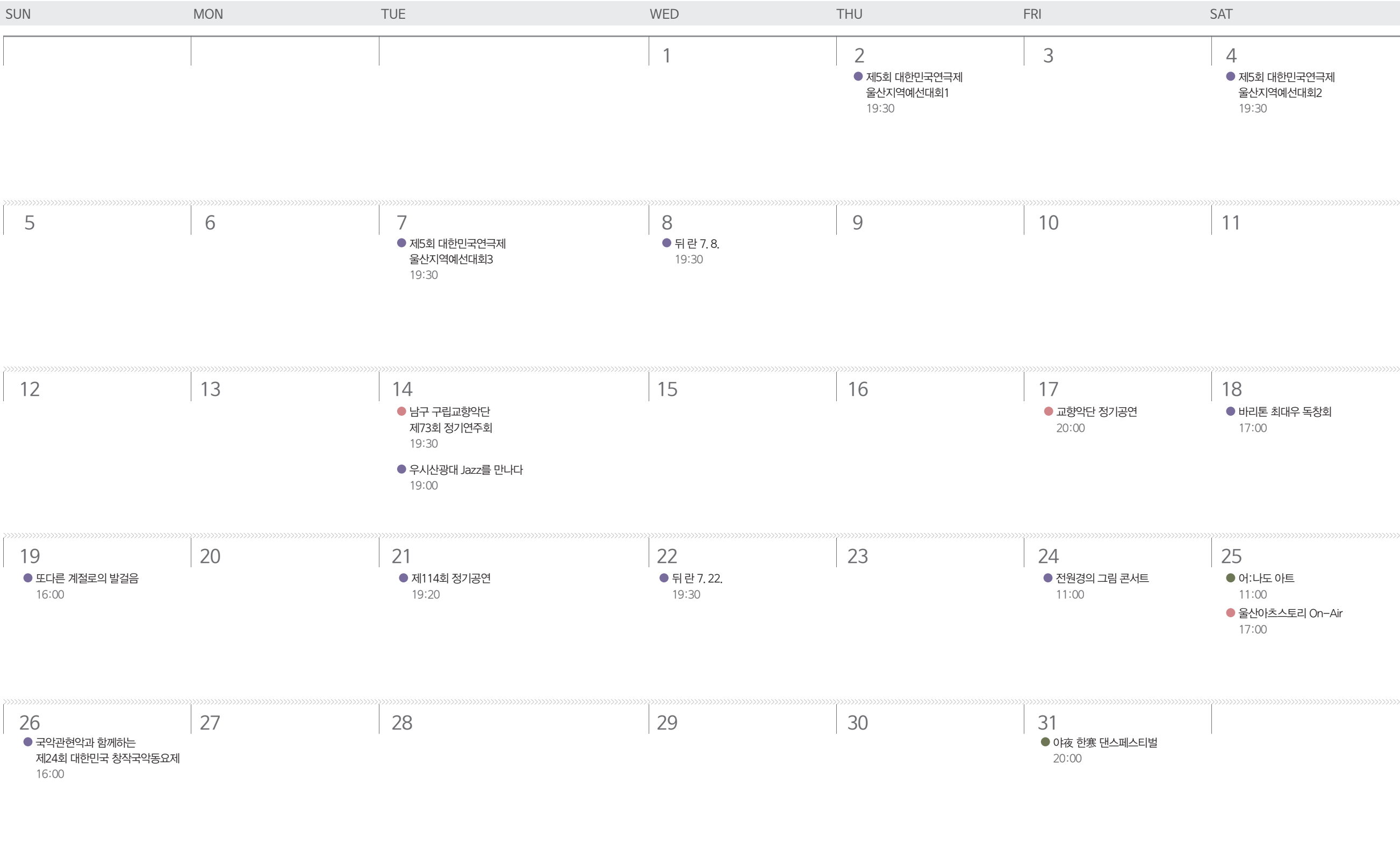
※ 전시일정 및 입장료는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일정

7
2020

2 0 2 0

- ※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일정

8
2020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 심터앞

※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야夜 한寒 댄스페스티벌 20:00
2	3	4	5	6	7	8
9	10	11	12 ● 뒤 란 8. 12. 19:30	13	14	15 ● 제23회 울산광역시 전국 국악경연대회 10:00
16 ● 제23회 울산광역시 전국 국악경연대회 10:00	17	18	19 ● 뒤 란 8. 19. 19:30	20 ● 제12회 울산 클래식음악제 19:30	21 ● 제12회 울산 클래식음악제 19:30 ● 교향악단 기획공연 20:00	22
23 ● 풍류를 꿈꾸다 18:30	24	25 ● 기획공연 19:30	26	27	28 ● One Summer Night -재즈 앤 월드뮤직 I	29 ● One Summer Night -재즈 앤 월드뮤직 II
30 ● One Summer Night -재즈 앤 월드뮤직 III	31					

전시일정



7
2020

- 제1전시장
- 제2전시장
- 제3전시장
- 제4전시장
- 갤러리 씬
- 야외전시장

※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제17회 울산전국서예문인화대전	2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제17회 울산전국서예문인화대전	3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제17회 울산전국서예문인화대전	4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제17회 울산전국서예문인화대전
5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제17회 울산전국서예문인화대전	6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7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제23회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 윤기동 사진전 ● 제48회 울산서도회전 ● 제24회 경상일보 보도사진전	8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제23회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 윤기동 사진전 ● 제48회 울산서도회전 ● 제24회 경상일보 보도사진전	9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제23회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 윤기동 사진전 ● 제48회 울산서도회전 ● 제24회 경상일보 보도사진전	10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제23회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 윤기동 사진전 ● 제48회 울산서도회전 ● 제24회 경상일보 보도사진전	11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제23회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 윤기동 사진전 ● 제48회 울산서도회전 ● 제24회 경상일보 보도사진전
12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제23회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 윤기동 사진전 ● 제48회 울산서도회전 ● 제24회 경상일보 보도사진전	13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14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울산민중미술 33년전 ● 제13회 먹물향기전 ● 제12회 반구대전 ● 서경희 개인전	15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울산민중미술 33년전 ● 제13회 먹물향기전 ● 제12회 반구대전 ● 서경희 개인전	16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울산민중미술 33년전 ● 제13회 먹물향기전 ● 제12회 반구대전 ● 서경희 개인전	17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울산민중미술 33년전 ● 제13회 먹물향기전 ● 제12회 반구대전 ● 서경희 개인전	18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울산민중미술 33년전 ● 제13회 먹물향기전 ● 제12회 반구대전 ● 서경희 개인전
19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울산민중미술 33년전 ● 제13회 먹물향기전 ● 제12회 반구대전 ● 서경희 개인전	20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21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울산 국제목판화 페스티벌	22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울산 국제목판화 페스티벌	23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울산 국제목판화 페스티벌	24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울산 국제목판화 페스티벌	25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울산 국제목판화 페스티벌
26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울산 국제목판화 페스티벌	27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28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29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영·호남 미술 교류전	30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영·호남 미술 교류전	31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 부) ● 영·호남 미술 교류전	

전시일정

8

2020

- 제1전시장
- 제2전시장
- 제3전시장
- 제4전시장
- 갤러리 씬
- 야외전시장

※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영·호남 미술 교류전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2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영·호남 미술 교류전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3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영·호남 미술 교류전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4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5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 제17회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작품전 ● 제12회 창작미술인협회전	6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 제17회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작품전 ● 제12회 창작미술인협회전	7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 제17회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작품전 ● 제12회 창작미술인협회전	8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 제17회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작품전 ● 제12회 창작미술인협회전
9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 제12회 창작미술인협회전	10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 제12회 창작미술인협회전	11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12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 울산예술문화명인 8인전 ● 제14회 울산예술작가회 회원전 ● 제43회 울산무지개 사진동호회전	13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 울산예술문화명인 8인전 ● 제14회 울산예술작가회 회원전 ● 제43회 울산무지개 사진동호회전	14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 울산예술문화명인 8인전 ● 제14회 울산예술작가회 회원전 ● 제43회 울산무지개 사진동호회전	15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 울산예술문화명인 8인전 ● 제14회 울산예술작가회 회원전 ● 제43회 울산무지개 사진동호회전
16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 울산예술문화명인 8인전 ● 제14회 울산예술작가회 회원전 ● 제43회 울산무지개 사진동호회전	17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 울산예술문화명인 8인전 ● 제14회 울산예술작가회 회원전 ● 제43회 울산무지개 사진동호회전	18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19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 제9회 청사연목회전 ● 울산구상작가회 정기전	20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 제9회 청사연목회전 ● 울산구상작가회 정기전	21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 제9회 청사연목회전 ● 울산구상작가회 정기전	22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 제9회 청사연목회전 ● 울산구상작가회 정기전
23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 제9회 청사연목회전 ● 울산구상작가회 정기전	24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 제9회 청사연목회전 ● 울산구상작가회 정기전	25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26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 삼동도예작가협의회 작품전 ● 제16회 안남용 개인전 ● 심상철 개인전	27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 삼동도예작가협의회 작품전 ● 제16회 안남용 개인전 ● 심상철 개인전	28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 삼동도예작가협의회 작품전 ● 제16회 안남용 개인전 ● 심상철 개인전	29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부)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 삼동도예작가협의회 작품전 ● 제16회 안남용 개인전 ● 심상철 개인전
30 ● 색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 삼동도예작가협의회 작품전 ● 제16회 안남용 개인전 ● 심상철 개인전	31 ● 삼동도예작가협의회 작품전 ● 제16회 안남용 개인전 ● 심상철 개인전					

유료회원 가입 안내

가입방법

회원기간 1년, 3년, 5년, 10년

회원종류 일반회원, 청소년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

가입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유료회원 전환(단체회원의 경우 전화 문의)

가입문의 울산문화예술회관 052) 275-9623~8, http://ucac.ulsan.go.kr

구 분	가입기준	연 회 비				혜택인원
		1년	3년	5년	10년	
일반회원	만 19세 이상	20,000원	50,000원	80,000원	150,000원	2명
청소년회원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	10,000원	25,000원	40,000원	75,000원	1명
가족회원	한가족	40,000원	100,000원	160,000원	300,000원	4명
단체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10명 이상)	10,000원(1인)	25,000원(1인)	40,000원(1인)	75,000원(1인)	가입인원

유료회원혜택

월 1회 발행되는 문예정보지(ARTS FRIEND) 우송
각종 공연정보 및 이메일 문자 안내
각종 공연·전시 할인 제공

- 연간 50여회의 울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공연 30% 할인
- 기획공연 30% 이내 할인 • 뒤란 등 상설기획공연 30% 할인
- 회관 주최 유료전시 30% 할인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적립률 공연별로 상이, 유효기간 5년)
 ※대관공연 적립제외

- 회관 주최 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5%, 회원가입비의 10%
-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는 회관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시 사용가능

협약점 이용 시 특별혜택 제공

협약점 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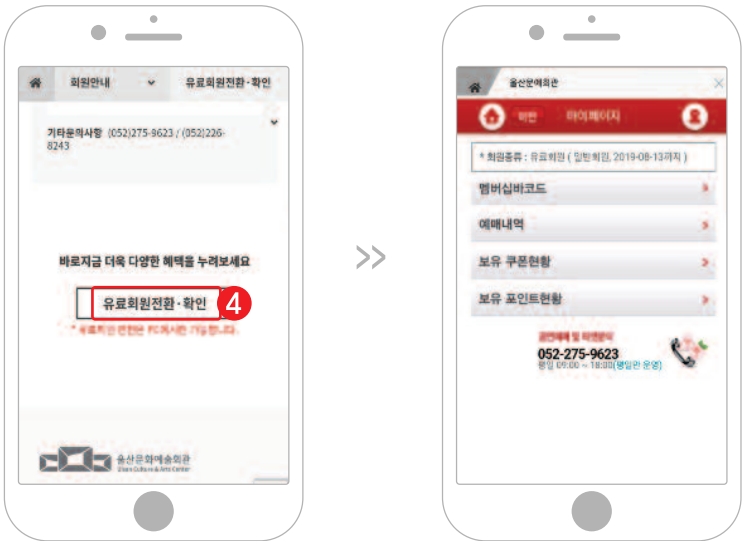
스마트폰 사용자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회원안내]
유료회원전환·확인 메뉴 들어가기



하단 유료회원전환·확인 클릭

유료회원 여부 확인

간단히 알아보기

1.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2.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3. 회원안내
유료회원전환·확인 메뉴 들어가기
4. 하단 유료회원전환·확인 클릭
5. 유료회원 여부 확인

유의사항 * 유료회원께서는 하단의 이용방법을 숙지 후 협약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디, 패스워드를 모를 경우 회관 052)226-8242 으로 문의바랍니다.

* 이용가능 회원종류 : 일반, 가족, 청소년, 단체회원
 * 캡처화면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스마트폰 미 사용자

회관 방문 후 인식증 발급 및 인식증 사용(발급비용 없음)



울산문화예술회관 개관 25주년 기념展

색의 거장
크루즈-디에즈

Cruz-Diez

The Master of Color

2020.8.01^{sat} - 8.30^{sun}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